



오근식
건국대학교병원 홍보과장

괴산 산막이 옛길

산막이마을 방향 괴산호전경.





산막이 옛길 연리지.



산막이 옛길 그네의자.

달천은 범주사가 있는 속리산의 골짜기에서 시작해 대야산, 주흘산, 월악산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의 수많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을 받아 북쪽으로 흘러 충주의 탄금대에서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달천은 흘러갈 길을 찾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산굽이를 돌며 산을 깎고 흙과 돌을 쌓으며 은자들의 이상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치가 빼어난 계곡마다 두타동천, 화림동, 백무동, 구룡동 또는 화양구곡 등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천 주변에는 유난히 많은 구곡이 전해집니다.

구곡문화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호모하고 닮고자 했던 주자가 남긴 무이구곡가의 영향을 받아 150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천 주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곡은 화양구곡입니다.

우암 송시열이 명명하고 이에 관한 시를 남겼습니다. 괴산에는 화양구곡 외에도 선유구곡, 쌍곡구곡, 같은구곡, 연하구곡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천 주변의 구곡 중 1800년대 중반 이름 붙여진 연하구곡은 1957년 괴산댐이 건설되면서 달천의 하리가 괴산호로 바뀌며 거의 사라졌습니다. 괴산댐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인 1957년 수력발전을 위해 순수한 우리 힘으로 세운 발전용댐입니다. 수력발전을 시작하면서 연하구곡의 크고 작은 풍경들은 훼손되거나 수몰되었습니다. 달천을 따라 산막이마을을 오가던 웅색한 길마저 괴산호 속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하구곡은 물론 산막이마을을 외부와 이어주던 길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산막이 옛길

산막이옛길이 부활한 것은 제주올레길의 성공 이후입니다. 2007년부터 제주도에 올레길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각종 길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고창 고인돌길마재 따라 백리길, 남양주 다산길 등...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1월 괴산군이 조성한 산막이옛길을 처음 사람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괴산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출발해 산막이마을까지 4 킬로미터 남짓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기에는 어딘지 아쉬운 길입니다. 그런데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연 150만 명이 이곳을 찾아와 걷고 있습니다. 봄가을 날씨 좋은 주말엔 말 그대로 인산인해의 길이 됩니다.

산막이옛길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라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온통 푸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산과 물은 그 초록의 경계가 어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파른 곳이 없어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부터 노인까지 부담이 없이 삼대가 함께 걸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길도 걷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고 산막이 마을을 즐깁니다. 조금 더 체력이 좋은 이들에게는 등산로가 매우 좋습니다. 호수와 산을 함께 바라보며 체력에 맞게 거리까지 선택해 걸을 수 있습니다.

산막이옛길은 아기자기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초입부터 그네의 자, 남녀가 뒤엉킨 듯한 19금 소나무와 사랑하는 이들이 꼭 보아야 한다는 연리지 나무를 보면 누구라도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볼품없는 작은

산막이 옛길 유리전망대.





산막이 옛길 연화담.

연못 연화담은 한 때는 논이었다고 하는데 이 깊은 산골에 손바닥만한 논이라도 가꾸어야 했던 산마을 사람들의 치열했던 삶이 보입니다. 매바위, 스프링스바위, 여우굴, 호랑이굴, 얇은뱅이샘물, 얼음바람굴의 이야기를 보며 걷는 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솔숲에 소나무 사이로 매달아 둔 출렁다리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은 이벤트입니다. 굳이 흔들거리는 이 출렁다리에 올라서지 않고 걸어가도 될 일이지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 길을 택해 웃고 소리 지르며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깁니다.

피꼬리전망대

피꼬리전망대는 40미터 벼랑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 중턱 길에서 괴산호 쪽으로 돌출된 이 전망대 끝에 가려면 강화유리 바닥을 걸어야 하는 아찔함을 견뎌야 합니다. 5월말 이곳을 찾아갔을

때는 정비공사 중이었는데 다른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괴산호 가장자리에 부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교에 올라서는 사람이 늘어나고, 유람선이 지나며 일으키는 파도가 밀려오면 일렁임의 폭이 은근하게 커집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바닥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은근히 찾아옵니다. 이 은근한 두려움을 즐기며 적응할 때쯤 산막이 마을 입구에 닿습니다. 땅에 내려서도 한동안은 땅이 흔들리는 듯합니다.

산막이마을은 더 이상 산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오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관광지일 뿐, 옛 모습은 흔적도 없습니다. 농사짓는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수련이 뚱뚱 떠 있는 습지는 한때는 논이었을 것이고 꽃을 심어 꾸며놓은 산책로는 밭이었을 것입니다.



산막이마을 노수신의 수월정.

마을과 조금 떨어진 아래쪽에 잘 정돈되어 있는 정자가 보입니다. 수월정(水月亭)은 조선 중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살았던 노수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방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마루가 있는 세 칸짜리 작은 집이라 함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노수신의 수월정

노수신은 29세에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으나 명종 2년 1547년 당쟁에 휘말려 순천으로 유배되었습니다. 33살에 순천에서 시작된 그의 유배생활은 진도와 괴산까지 이어져 1567년, 그의 나이 53살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해배된 후 그는 선조가 가장 아끼는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헤치며 학문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산막이마을의 수월정은 노수신이 괴산으로 이배되어 유배생활을 했던 거처였습니다. 그의 10세 손인 노성도가 순조 때에 이곳으로 이주해 수월정을 짓고 연하구곡을 설정했습니다. 1957년 괴산댐이 건설되면서 수월정은 수몰을 피해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수월정은 수몰을 피했으나 노성도(盧性度)가 소재 선생을 기리며 읊었던 연하구곡의 흔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연하협출렁다리에서 그 이름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산막이옛길 얇은뱅이약수.



산막이마을입구 물레방아.

연하협 출렁다리

수월정을 나서서 호숫가 길을 따라 풀과 물을 살피며 상류쪽으로 1 킬로미터쯤 더 걸어가면 연하협출렁다리를 만납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괴산호 전경은 한층 더 시원해서 산막이마을에서 여기까

지 더 걸을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충청도양반길이 이어집니다. 더 많이 걸으며 산과 물과 길 끝에서 만나는 산촌마을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연하협출렁다리를 건너갑니다.

산막이마을 연하협 출렁다리.

